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anie Forest

각색: Ruth Klassen

번역: Helen Hwa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http://www.M1914.org)

©2010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있었는데  
엄청난 폭풍이  
일었어요.  
난파와 익사를  
야기할 수 있는  
사나운 폭풍이  
갈릴리 바다를  
덮쳤지요.



제자들은 그 폭풍으로 겁에 질려 있었어요.  
파도가 배를 뒤덮었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와중에도  
곤히  
잠들어  
계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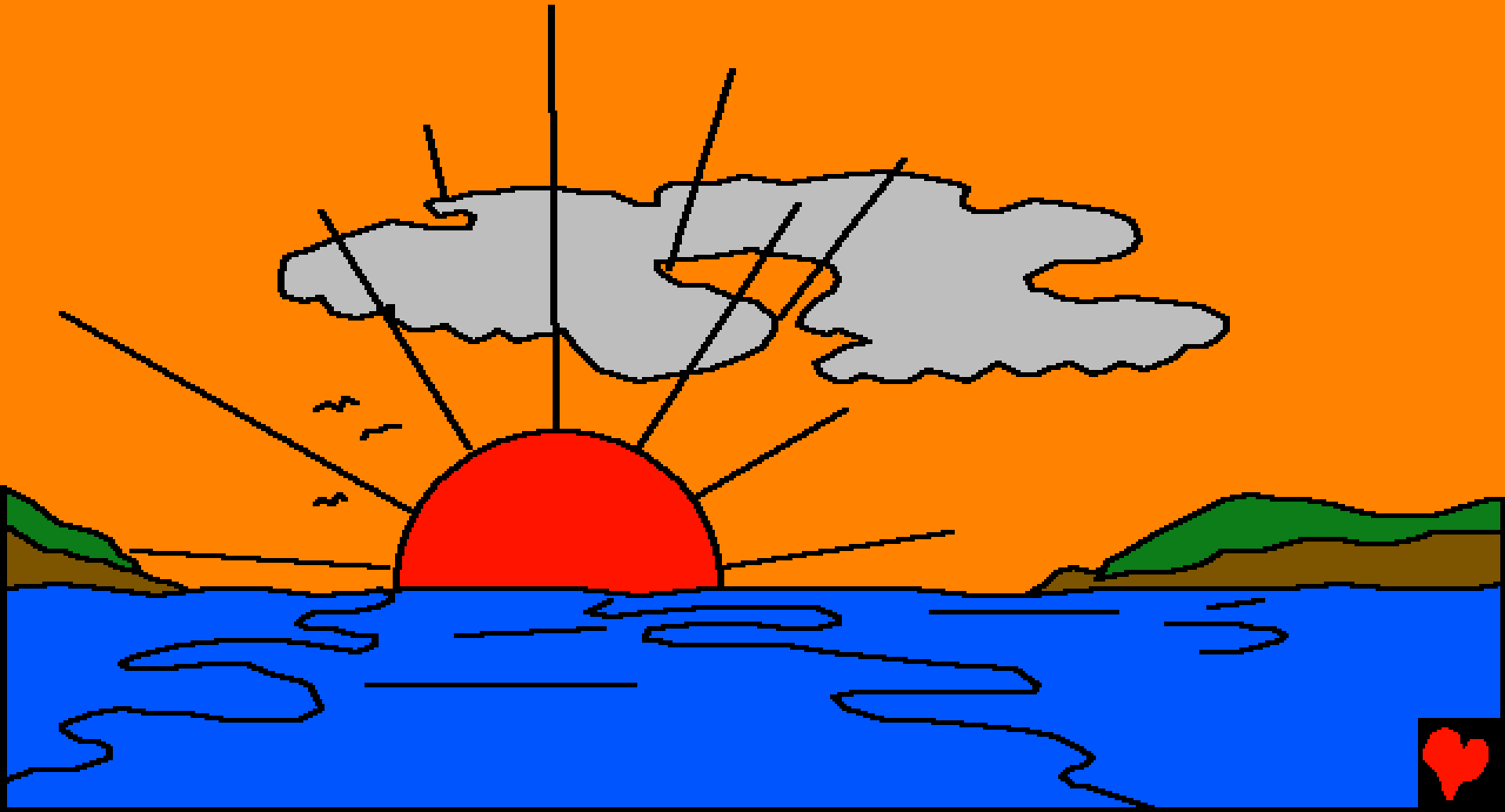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 쳤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죽게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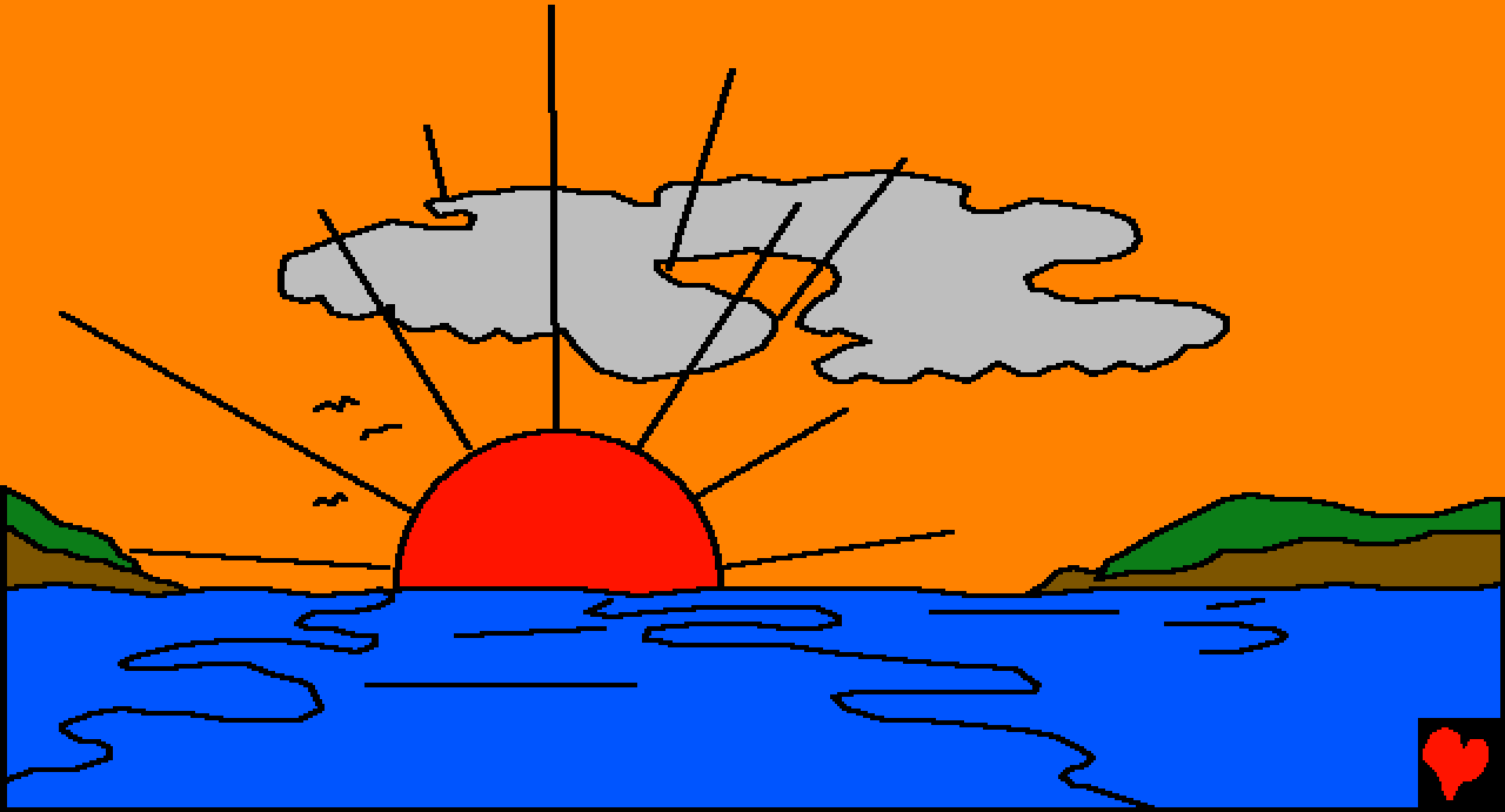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고는 예수님은 바람을 멈추라고  
사나운 파도를 잔잔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다시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말하었어요. “대체  
이 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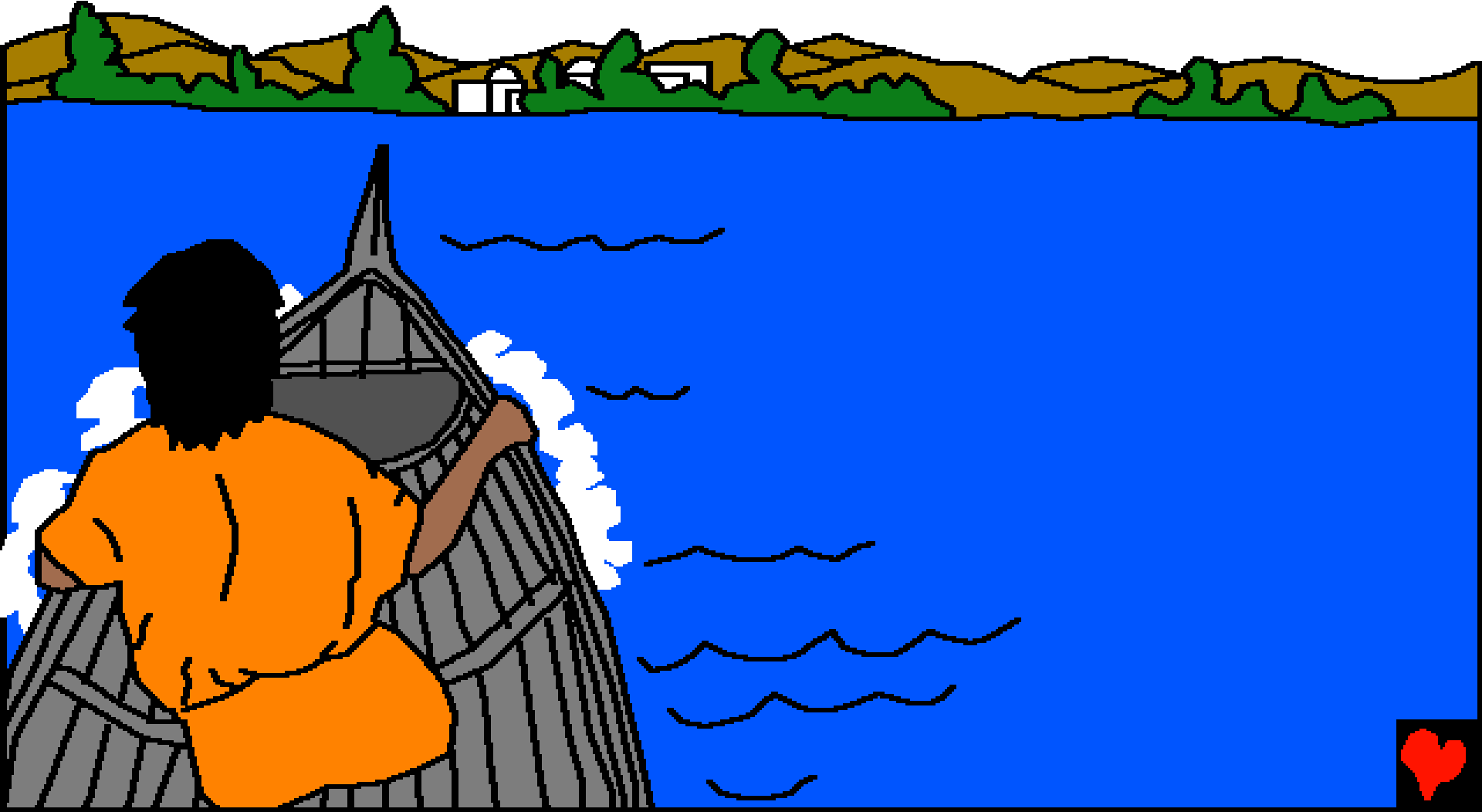
며칠 후에, 예수님이 또 바쁜 하루를 보냈지요. 오천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이 무리를 먹였지요.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이들을 돌려  
보냈어요.



제자들조차도 떠나야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트에 태워 앞서 갈릴리 바다의  
다른 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  
가셨어요.  
밤이 되자,  
그는 홀로  
거기  
계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폭풍우에 갇혀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가도  
오도 못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감쪽소를  
준비하고  
계셨지요.





새벽 세시에서  
여섯시 경에,  
바람에 뒤덮인  
바다에서  
제자들은  
뭔가를 보고  
겁에 질려  
외쳤어요.  
“유령이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었어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계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하었어요.  
“주님, 저를 명하여  
주님께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고  
명하시자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보트에서  
나와 물 위를  
걸어 주님께  
다가갔어요.





그러나 그가  
바람소용돌이를  
보고 겁에  
질리자마자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는 주님께  
살려 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주님은 즉시 그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과 베드로가 보트로  
돌아가자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보트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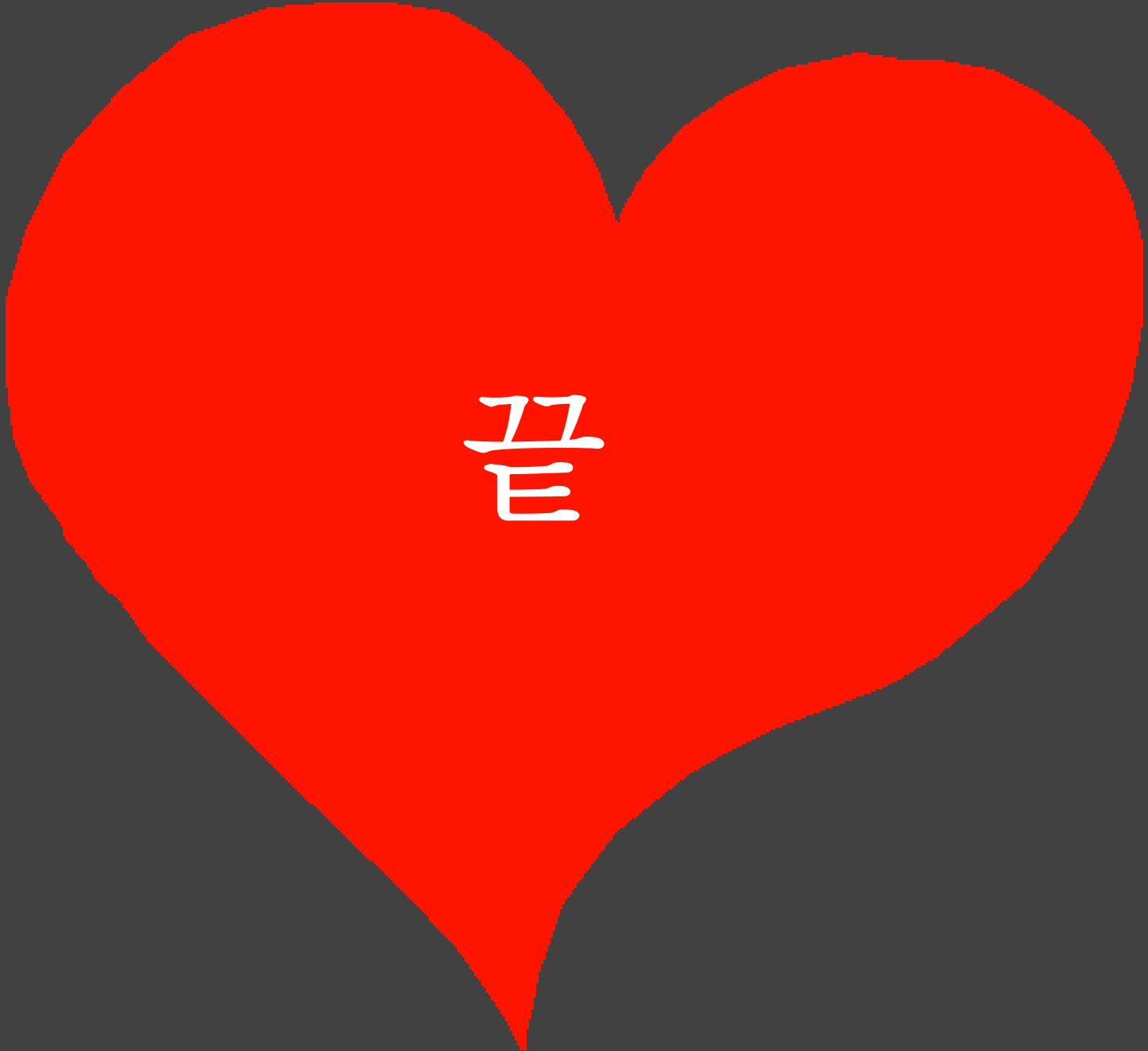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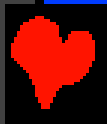
마태복음 8장, 14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